

→ 우리 분야 새로 나온 책

① 『독서치료와 도서관의 역할』. 신주영. 한울아카데미. 2004. 3. 174p.

부산대학교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연구된 독서치료 관련 모임에서 발행된 책으로 도서관 서비스의 하나로 독서치료를 말하고 있다. 독서치료연구가 궁극적으로 서시직의 전문성 확보와 서비스 영역의 확장이라고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인간심리와 독서치료에 대해 새롭게 접근하기, 이론적 논의, 자료를 통한 마음의 상처 확인하기, 책읽기를 통한 마음의 상처 치유하기, 독서치료를 위한 사서와 도서관의 대응방안, 상처받은 마음 넘어서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 『독서치료와 공공도서관 서비스』. 송영임. 한울아카데미. 2004. 3. 169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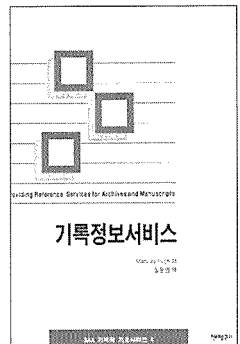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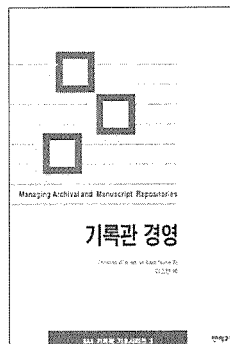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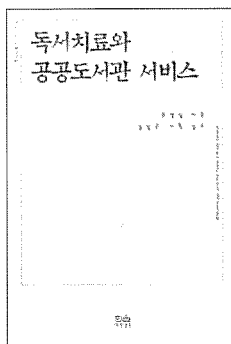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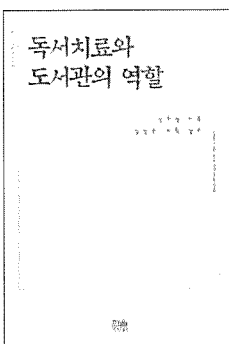
부산대학교 독서치료 관련 모임에서 발행된 책으로 공공도서관 사서들의 독서치료에 대한 인식이 낮고 구체적인 적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서에서는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적용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마음의 상처와 치료적 대안, 공공도서관과 독서치료, 독서치료 적용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역할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③ 『기록관(Managing Archival and Manuscripts Repositories) 경영』. 이소연 역. 진리탐구. 2004. 176p.

이 책은 아키비스트에게 현대경영의 개념과 기능을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역자는 기록관에 있어서 경영을 "기록을 수집, 정리, 보존, 이용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관 인력, 예산, 컬렉션과 설비 등을 계획, 조직, 지휘, 통제하는 활동"이라 정의하고, 이 책을 통해 미래의 아키비스트들이 실무환경에서 발생하는 경영문제를 엿보고 그 해결방안의 모색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④ 『기록정보서비스(Providing Reference Services for Archives and Manuscripts)』. 설문원 역. 진리탐구. 2004. 227p.

서비스는 기록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결과물이다. 따라서 기록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이론적, 실천적, 윤리적, 기술적 측면을 두루 포함한 서비스론이 정립되어야 한다. 기록관리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존 패러다임'에서 '접근 패러다임'으로 기록관리 체제 전반의 기초가 바뀌었으나 아직 소극적 차원의 열람과 정보공개에 그치고 있는



것이 우리 기록관의 현실이다. 이 책은 비록 번역서이지만 기록관에서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때 고려해야 할 다양한 측면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⑤ 『정보의 힘 -학교도서관을 위한 협동체제 구축-』, 김병주 역, AASL&AECT 공편, 한국도서관협회, 2004. 4. 285p.

이 책은 1998년에 American Library Association에서 출간된 Information Power -Building Partnership for Learning-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으로 학교도서관 운영전반에 걸친 지침서이다. 3년여간의 노력 끝에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merican Association of School Librarians(ALA: AASL, 미국도서관협회: 미국사서교사협회)와 Association for Educational Communications and Technology(AECT, 교육커뮤니케이션 및 공학협회)가 공편한 것이다. 또한 1988년에 상기 두 협회에서 공편하였던 Information Power -Guideline for School Library Media Programs를 대체하는 것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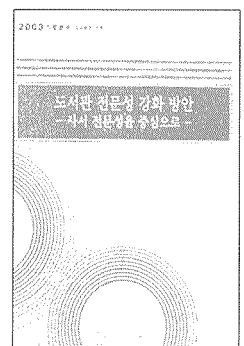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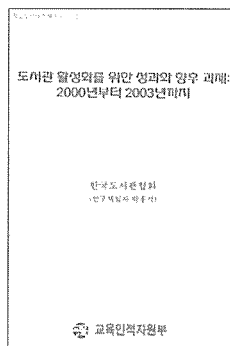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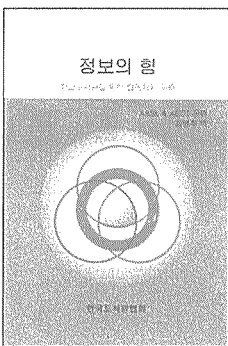
학생의 학습성취도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정보를 활용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정보의 힘"을 위해 협동체제를 구축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제1부는 학습을 위한 정보 활용능력 기준에 대해, 제2부는 학습을 위한 협동체제 구축에 대해 다루고 있다.

⑥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성과와 향후 과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교육인적자원부(연구책임자 : 박홍석), 2003. 12. 303p.

2000년부터 2003년까지의 도서관 사업을 학교도서관과 대학도서관으로 나누고, 사업은 학교도서관 활성화와 학교도서관 정보화, 대학도서관 활성화와 대학도서관 정보화로 구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생산된 문서들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별첨자료로 교육인적자원부의 결재문서 및 회의, 간담회, 공청회 등의 문서가 실려 있다.

⑦ 『도서관 전문성 강화 방안 - 사서 전문성을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연구책임자 : 김세훈), 2003. 158p.

도서관의 전문성을 사서의 전문성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살피고 있으며, 인적 자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하여 양질의 전문화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전문성이 가지는 의미, 사서의 역할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에 기초하여 현재 사서를 위한 교육과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선진국의 예를 중심으로 전문직



사서의 자격요건과 양성과정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도서관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성에 대해 검토한 연구보고서이다.

⑨ 『**도서관및독서진흥법 개정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연구책임자 : 김세훈). 2003. 185p.

도서관 법의 역할을 변화된 사회환경에 맞게 한층 더 강화하면서 앞으로의 도서관 발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 개정방향을 점검하고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도서관 법의 변화, 외국 도서관법의 분석, 도서관및독서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⑩ 『**IFLA/FAIFE World Report 2003 Intellectual Freedom in the Information Society, Libraries and the Internet**』. Stuart Hamilton&Susanne Seidelin(IFLA/FAIFE). 2003. 240p.

IFLA/FAIFE 세계 보고서 2003은 88개국의 응답을 중심으로 신고 있는데, 각 나라마다 사정이 매우 다르나, 대부분의 국가의 국민은 지식에 대한 갈망은 높기 때문에 그들이 정보를 무제한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촉진하는 것이 본 위원회의 역할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도서관과 인터넷에 대해 집중해서 다루고 있는데, 필터링, 프라이버시, 지적자유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보고서는 정보와 지식사회의 도전에 응하기 위해 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보접근과 표현의 자유, 정보 검열 등의 이슈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이런 이슈들은 지속적으로 국제적 차원에서 다루어 있다. 도서관에서의 지적자유에 대한 정보를 세계 각 도서관에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⑩ 『**정보통신윤리백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3. 357p.

정보통신윤리백서는 정보통신사회의 발전과 현상에 대한 기본이해 및 진단을 위해 불법·청소년 유해정보 유통 현황, 정부·민간부문 등 각계 각층의 노력과 성과, 세계 각 국들의 재활동에 대한 분석 등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미래의 건전하고 깨끗한 정보통신윤리 환경조성 기본지침서로 발간되었다. 정보사회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건전한 정보통신윤리 확립을 위한 노력과 성과, 밝고 건강한 디지털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정책방향, 해외 정보통신윤리 활동 등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부록으로는 정보통신윤리 관련 주요 통계, 정보통신윤리 관련 기관·단체 현황, 정보통신윤리 관련 법률이 실려 있다.

